

사슴의 겨울철 사육관리

야생에서의 사슴의 생태를 관찰해 보면, 사슴은 여름철에는 고산의 꼭대기 삼림지역에서 지대로 낙엽이 지기 시작하는 가을철에는 차츰 저지대로 이동하며 겨울철에는 양지바른 산중턱에 자리를 잡고 낙엽 떨어진 나무열매 등을 채식하며 지낸다.

겨울철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눈이 덮혀 먹을 것도 부족하므로 사슴은 본능적으로 여름, 가을을 통하여 여러가지 사료를 충분히 채식하여 영양을 축적한 다음, 겨울철에는 채식량이 적으므로 열소모량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운동을 적게 하며, 축적된 영양을 소모하며 살아 가기도 한다. 또한 생리적 기능에서도 갑산성 홀몬 기능이 위축되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내대사를 조절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인공사육시에는 인위적으로 사료를 항상 공급해 주고 있으므로 겨울철이 되기 전까지 이상적인 사양관리가 되지 못하여 영양상태가 좋지 않으면 겨울철 건강관리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 심하면 합병증이 발생되어 폐사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된다. 특히 허약한 사슴이나 어린사슴, 노쇠한 사슴 등은 따로 격리하여 특별한 사양관리와 보온 유지 등을 위하여 바람막이를 해 주거나 가랑잎이나 짚을 깔아 주어 땅으

로부터 냉기를 차단시켜 주도록 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철의 사료 급여기준은 농후사료(배합사료)의 경우, 사슴체중의 1% 정도는 최소한 급여토록 하며(엘크사슴 성육기준 약 3~3.5 kg, 레드디어 1.2~1.5 kg, 꽃사슴 0.5~0.8 kg을 1일 급여) 건초는 질 좋은 것으로 항상 먹고 남은 정도로 주는 것이 좋으나 최소한 농후사료의 3배는 급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처음 겨울을 맞는 어린사슴의 사양관리는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으며 겨울철인 12월부터 계산하면 대체적으로 일찍 생산된 새끼는 분만후 5~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사육에 별 어려움은 없으나 계속 성장기에 있으므로 사양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면 영양상태가 좋아져서 성장이 빠르며 수놈의 경우는 내년엔 일찍 외가닥 뿔이 자라 나와 2회 절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암놈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발정이 일어나 임신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도 큰 차이가 생기므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체로 사슴새끼의 이유시기는 최소한 어미와 함께 3개월은 지낸 다음 실시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약 4개월 이상을 어미와 함께 지내면 훨씬 새끼의 성장 발육이 좋아진다. 대체로 어미

와 함께 사육하다가 어미가 재발정이 와서 교미한 후 임신이 되면 새끼는 분리 사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대야만 어미들과 함께 사료를 채식할 때 제대로 사료를 먹지 못하는 폐단을 줄일 수도 있으며 집중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사양관리도 할 수 있다. 또한 새끼들은 필히 기생충 구충을 실시하고, 겨울철 성장촉진을 위해 “영양대사 촉진제”를 사료에 혼합, 투여하면 일반적인 질병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한 사슴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겨울철 사육관리 중 특히 주의 할 일은 급수 물이 얼지 않도록 항상 녹여 주도록 하며 엔시레이저를 먹이는 농장에서는 사료가 남아 얼지 않도록 금방 먹여 치울 수 있는 양만 주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요즘 알팔파 큐브나 펠릿가 수입되어 건조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장이 늘고 있는데, 알팔파는 영양이 풍부하여 건조와 섞여서 먹일 때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으나 완전한 조사료의 구실을 하지 못하므로 알팔파만을 조사료로 급여하는 것은 사슴건강에 오히려 좋지 못하다. 대체로 조사료의 1/3 만을 알팔파로 대체하면 좋으나, 알팔파 만을 먹일 경우에는 채식후 체내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산화현상으로 농후사료의 구실을 하게 되므로 살이 찢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 볼 때 소화능력이 감소되며 반추력도 약해져서 수명단축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거친 조사료(나무잎 등)를 함께 급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알팔파큐브는 큐브상태보다는 부스러트려 먹이는 것이 소화작용을 위해 좋으며 꽃사슴의 경우는 식도에 걸려 식도폐쇄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겨울철에 흔히 발생하는 질병은 급성 식체 현상이다. 발병의 원인은 날씨가 춥고 사육장내가

얼어 붙어 미끄럽게 되면 자연히 운동기피 현상을 보이게 되며(특히 경사가 심한 사육장은 더욱 나쁨) 체기능도 위축되기 마련인데 특히 저녁에 사료를 먹고 급격히 기온이 하강하는 밤중에 냉기가 올라오는 땅위에 웅크리고 오랫동안 앉아 있게 되면 위운동이나 반추작용이 미약해져서 소화장애가 오고 제1 위 내에 산도가 증가하므로써 위내의 균형이 깨지게 되므로써 발병이 되는 수가 있으며 특히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소화능력이 저조한 사슴에서 발병되는 사례가 많으며 심하면 갑자기 폐사하기도 한다. 경증일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사슴을 가볍게 운동시키므로 풀리는 경우도 있으나 심한 경우는 복통을 발하고 허리를 굽히며 보행동작이 완만해 지고 뒷다리를 뒤로 뻗쳐 기지개를 펴는 동작을 자주하게 되며 더 진전되면 침을 흘리고 운동을 기피한다. 이런 경우는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 수의사에게 의뢰하여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혹 식체증상 뿐 아니라 농후사료의 과다급여나 부패된 사료(건초 채취시 우기에 말린 것은 부패되거나 곰팡이가 설었던 것도 있음)의 채식 등으로 인하여 설사를 동반하는 급성 장염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겨울철의 설사는 빨리 치료하여 주지 않으면 악화되어 예후가 불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탈수현상으로 체기능이 저하되는 데다 추운 날씨로 회복이 느리기 때문이다. 이때는 소화효소제, 위기능향진제 정장제, 항생제, 영양제 등을 주사 또는 경구투여하여 소화가 잘 되는 질 좋은 건초 등을 급여하여 사양관리에 신경을 써 주어야 한다.

만성 장염으로 이환되면 장기능이 저하되어 영양흡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변이 뭉쳐나

오며 영양상태가 불량하여 마르고 털이 거칠며 행동이 활발치 못하다. 때로 변에 점액이 섞여 나오고 심하면 혈액도 섞여 나온다. 만성 장염으로 사슴이 허약해 지면 추운 혹한기에 추위를 견디기 어려우며 식체현상이나 급성 폐렴 증상을 발할 수도 있으며 심하면 갑자기 폐사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우선 사육장을 보온용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일반적인 장염치료는 물론 장점막의 기능을 정상화 시킬수 있도록 보호,피막제를 장기간 투여하며 영양대사 촉진제를 함께 투여하여 식욕촉진 및 체기능을 향진토록 한다.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모든 질병의 원인은 사양관리의 불합리로 인하여 발병되므로 무엇보다 기본적인 사양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급작스런 사료의 변경이나 부산물(배추잎, 무우잎, 당근잎, 사과껍질, 도토리 찌꺼기 등)의 과다급여는 삼가하여야 한다. 간혹 겨울철에 기침을 동반하는 “기관지 폐렴” 증상을 나타내는 사슴들이 있는데 전술한 바와같이 허약한 사슴이나 노쇠한 사슴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늦게 분만된 새끼(9~10월에 분만)나, 만성 장염 등 질병에 이환되어 영양상태가 불량한 사슴들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기온이 갑자기 추워진다든지 일교차가 심하여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체기능이 저하되어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외 모집군에서 여러마리가 기침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개 곰팡이가 설은 건초를 먹었다든지, 오염이 심하거나 오래된 사육장의 건조한 흙, 먼지등을 흡입하여 발생되기도 한다. 예방, 치료로는 우선 사육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하며 보온을 위한

바람막이 시설을 해주도록 하며 2차적 감염을 막기 위해 항생제 등을 주사함은 물론 영양제를 투여하여 체기능을 향진시켜 주도록 하고 때로는 심한 경우의 사슴은 격리하여 대증요법을 실시하여 치료토록 한다.

그외 동절기에 발생하는 질병은 사육장내의 시설이나 조건이 나빠서 발생되고 사고성 질병(외상, 골절 등)이므로 시설의 점검과 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예방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 회 안 내

경인지회	신현광	032 - 93- 9107
강원지회	최영화	0361 - 54- 2087
충북지회	유근형	0431 - 55- 8746
온양지회	이종권	0455 - 2- 2840
대전지회	신홍순	042 - 45- 3392
전북지회	김형순	0652 - 84- 2708
전남지회	정종호	0666 - 32- 5555
경북지회	안승명	0571 - 56- 4726
대구지회	류재영	053 - 66- 7018
부산지회	이병읍	051 -754- 3352